

거대양당 견제 외쳤지만... 득표율 낮아 제3당 실험 중대기로

바른미래·평화당 참패... 대안정당 존재감 부각 실패
 바른미래, 광역단체장·국회의원 0명... 서울시장 3위 밀려 참혹
 평화당, 호남 당력 불구 기초장 5명 당선 지역 정당 한계 드러내

6·13 지방선거에서 야당의 참패는 대안 정당 가능성을 모색해 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게도 충격을 줬다. 정치권에서의 '제3의 길' 실험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14일 개표가 끝난 결과, 바른미래당은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단 한 명도 승리하지 못했다. 원내 제 3당의 지위로 봤을 때 그야말로 참혹한 성적표다. 바른미래당은 특히 당의 사활을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당력을 쏟아부었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에게도 밀려 3위에 그치지 큰 충격에 빠져든 모습이다. 당선은 어렵더라도 민주당 박원순 후보를 위협하는 2위를 기대했던 당 지도부는 크게 낙망했다. 그들은 안 후보가 2위를 하면 적어도 한국당의 존재를 위협하며 바른미래당의 존재가치를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자신들이 지방선거 후 사라질 정당이라고 혹평했던 한국당 후보에게도 밀렸으니 할 말을 잃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른 광역단체장 선거 상황도 다르지 않다. '거대양당 견제'를 외쳤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에 밀려 3위를 차지했고, 득표율은 한자릿수에 그쳤다. 그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조차 '0석'의 불명예를 기록했다. 5명을 기초단체장을 당선시킨 민주평화당만도 못한 성적이다. 무소속 후보가 17명이 당선됐는데 그런 후보들을 영입하지 못했으니 그들로부터 철저히 외면 받은 정당이 된 것이다.

불과 2년 전인 20대 총선에서 바른미래당의 양 세력 가운데 하나인 국민의당이 38석을 확보해 '녹색 돌풍'을 일으켰던 당시에 비할 수 없는 것은 물론, 4개월 전 창당 당시 경기도와 제주 등 2개 광역단체장을 확보했던 상황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도 보수층을 타깃으로 출발했지만, 창당 후 줄곧 자중지란에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며 결국 대안정당으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는데 실패한 것만 지역이

나온다.

바른미래당보다는 조금 낮지만 원내 4당인 평화당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지역적 지지기반인 호남 선거에 당력을 집중했지만 광역단체장 선거는 물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모두 패배했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호남지역에서 5명을 당선시키는 등 일부 선전한 게 그나마 위안이지만 의석수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성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당의 터전인 호남에서 민주당에 완패를 당해 호남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민주당 소속 의원에게 빼앗긴 것은 평화당 의원들에게 가장 가슴 아픈 대목이다. 이미 평화당은 선거 전부터 호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도 내지 못하는 등 지역정당 이미지를 벗지 못하며 결정적 한계를 드러냈다.

정치권에선 이들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 것을 놓고 '구석구석 뿌리내린 견고한 양당구도 속에 제3정당이 풀뿌리 단위로 깊숙이 파고들지 못한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 초반부터 높은 대통령 지지율과 북미정상회담 등 외교안보 이슈 등으로 여당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구도가 형성, 제3세대 정당들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졌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선 이들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 것을 놓고 '구석구석 뿌리내린 견고한 양당구도 속에 제3정당이 풀뿌리 단위로 깊숙이 파고들지 못한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 초반부터 높은 대통령 지지율과 북미정상회담 등 외교안보 이슈 등으로 여당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구도가 형성, 제3세대 정당들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졌다는 분석이다.

지역 기자 jkpark@kwangju.co.kr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4일 사퇴 의사를 밝히고 서울 여의도 당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선거 결과 자만 않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선거 결과에 결코 자만하거나 안일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하겠다"며 "다시 한 번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고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6·13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 결과와 관련해 "국민께서 정부에 큰 힘을 주셨다. 지방선거로는 23년 만에 최

고 투표율이라니 보내주신 지지가 한층 무게가 달다.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 전반을 다 잘했다고 평가하고 보내준 성원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며 "모자라고 아쉬운 부분이 많을 텐데도 믿음을 보내셨다. 그래서 더 고

맙고 더 미안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켜야 할 약속들과 풀어야 할 과제들이 머릿속에 가득하다"며 "쉽지만은 않은 일들이지만 국정 중심에 늘 국민을 놓고 생각하고, 국민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심 왜곡·오독한 한국당 홍준표 대표 결국 사퇴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 자유한국당이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홍준표 대표가 정치적 치명상을 입고 결국 사퇴했다.

홍준표 대표 등 당 지도부는 14일 오후 이번 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홍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다"면서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이로써 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의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홍 전 대표는 인재영입위원장과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총지휘하며 광역단체장 6곳 수성을 자신했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대구·경북(TK)만 겨우 지켜내면서 지방권력에 관한 한 사실상 'TK 정당'으로 쪼그라들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가 가시지 않은 데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 속에 시작부터 불리한 경기였지만 '막말', '사천' 논란에 휩싸이며 당내 분란을 자초한 홍 대표도 패배의 책임을 피해가지 못했다. 홍 대표는 일련의 남북대화 기류 속에서 "다음 대통령은 김정은이 될지 모르겠다", "위장평

화쇼' 등의 보수 강경 발언을 쏟아내 지나치게 민심과 괴리됐다는 비판에 부딪혔다.

이는 결국 선거운동 기간 일부 후보자들이 당 대표의 지원 유세를 피하는 '홍준표 패싱' 현상으로 이어지기까지 했다. 특히 홍 대표는 선거 내내 더불어민주당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며 '사이보우'의 결집을 강조했지만, 이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는커녕 오히려 보수 지지층의 반발심을 유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8월 전대 흥행가도 달라나

당 대표 10여명 출사표
 21대 총선 공천 영향력 행사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오는 8월 전당대회가 흥행가도를 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는 의원이 10여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되면 오는 2020년 21대 총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2022년 대선에서 차기 주자 반열에 오

를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 당내 분위기가.

현재 당 안팎에서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중진은 호남 출신인 송영길·전해철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김진표·박병계·박영선·설훈·우원식·윤호중·이인영·이종걸·이해찬·최재성 의원 등 10명이 넘는다. 여기에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부와 청와대에 몸 담고 있는 전·현직 의원들의 이름도 거론된다. 물론 계파 정리 등이 이뤄지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군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친노 좌장인 이해찬 의원과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 등 친문 의원들이 교통정리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비문 의원들도 서로 세력을 규합해 대표 의원을 내세울 수 있다. 이밖에 차기 대권 등을 감안해 여당과 청와대가 교감하면 후보군이 정리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등 변수가 많다. 또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규칙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후보군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라며 "올 여름 야당은 정계개편 때문에 바쁘겠지만, 여당은 당대표 선거가 뜨겁게 달아올라"고 말했다.

지역 기자 jkpark@

대선 이어 또 3위... 안철수 정치생명 최대 위기

향후 행보 촉각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해 대선에 이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3위를 하면서 정치생명 최대 위기를 맞았다.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도 밀려 3위로 머문 안 후보가 체급을 낮춰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했지만, 또다시 3위로 무릎을 꿇게 된 것이다. 홍준표가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후보직을 양보했고, 다음 대선이 대선 후보직 사퇴, 2014년 새정치민주연

합 창당, 2016년 국민의당 창당, 2017년 대선 출마, 올해 바른미래당 창당으로 이어지는 '안철수의 정치실험'에 실패의 기록을 하나 더 쓰게 된 것이다.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시 야권의 박원순 후보에게 '아름다운 양보'를 한 안 후보가 7년 만에 서울시장에 도전했다가 큰 차이로 패배를 한 이번 선거 결과는 지난 대선 결과와 '판박이'라는 지적이다.

안 후보는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후보직을 양보했고, 다음 대선이 대선 후보직 사퇴, 2014년 새정치민주연

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당선된 반면 안 후보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밀려 3위를 했다. 안 후보의 이번 패배는 정치 입문 8년 차인 안 후보의 정치 소신의 모호함과 리더십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선거전 막바지에 김문수 후보와 단둘이 만나 단회화를 시도했다는 이미지를 유권자들에게 심어준 것도 중도표를 대폭 끌어 먹은 요인으로 꼽힌다. 그의 이런 정치적 행보는 당내에서 큰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지역 기자 jkpark@

새로운 세계를 보다

신세계안과

밝은광주안과가 ● 신세계안과로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8인의 안과전문의(현 의료진 그대로)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년 1.75% 가능

직접 운영하실 분 ▶

땅만 빌려주실 분 ▶

- 땅만 있으면 발전 설비해 드립니다.
- 원금, 이자 빼고 8~10% 가능
- 20년후 기부체납 (임대비 선불로 드립니다)

햇빛 농사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